

가정 예배 모범

- 2020_08_30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8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보시며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어둠 속에서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이사야 38:1-22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심한 병에 걸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왕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삶과 죽음과 복과 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또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당하더라도 이는 더 큰 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고통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메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2)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히스기야는 병에 걸리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사가 달린 위기의 순간에 처하자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잇고 끊기는 베틀 위의 실과 같다고, 사자에게 붙잡힌 먹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